

특별기획

익산시, 가스취약시설대상 연중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가스취약시설과 가스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시가스 1개소, LP가스 95개소, 고압가스 160개소 등 총 256개의 가스취약시설로 해빙기, 장미철을 비롯해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연휴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익산센터가 협조하여 합동으로 시설물 철하 및 균열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 한다.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민원발생과 안전에 현저히 위반되는 사항은 시장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서민층의 경우 1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적합 가스시설 820세대를 대상으로 배관교체를 추진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제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익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상형실에서 '익산시 제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복지점소년과장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 및 논의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 자리에서 29개 읍면동 협의체 민간 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제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로 각 읍면동별 20명 내외로 시 전체 388명으로 구성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도로정비 자체설계반 운영

군산시가 2017년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예산 절감 및 조기집행을 위해 토목직 공무원 5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설계반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98건 74억원에 대하여 자체설계반을 구성, 자체설계를 추진하여 현장 실정 반영은 물론 2억95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136건 114억 원에 대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해 5억5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와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및 설계능력을 배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에 대응하고 경기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시행함에 따라 군산시 또한 정부정책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 64%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 경기활성화에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교통사망사고예방 홍보 전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겸감 김용대)는 보행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노인정,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해 노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예방 홍보에 주력,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홍보를 전개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관내 중앙·남중·모현·송학동 주요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 방안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특별방범활동 일환으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취약지역안내 및 여론을 수렴하는 등 우리지역 안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우리 부모님이나 아들·딸들도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무주택 저소득계층·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18일~24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군산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34세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 8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 19세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전세임대 30세대이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 한도액은 5500만원으로, 전세 지원금의 5%는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1~2%로,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2년,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6년 12월 27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89만원) 이하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 인정특정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소득

이 100%(4인가구 539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3인이하 기준 337만원)일 경우 해당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하림, 동반성장 문화 만들기 '앞장'

TFT 킷오프 본격 활동... 자율준수프로그램 적극 실천

국내 닭고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하림이 2017년 정유년 한 해 협력사와의 상생 정책을 위한 경영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11일 하림 본사 회의실에서 이문용 총괄사장을 비롯해 정문성 부사장, 홍원원 전무, 정호석 상무 등 임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TFT 킷오프를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하림은 농가와 대리점, 고객 등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협력사의 상생을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경영 추진과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을 이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법행위의 예방과 조기 발견 시정을 위한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문서 책임자를 지정한 최신정보 제공 등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하림 이문용 총괄사장은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직원 모두가 자율준수프로그램 행동지침을 준수해 (주)하림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주)하림은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우유할인 행사,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및 도서 증정,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탐방 행사 등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내달 11일까지 문화유산 시민공모

시민 소장 부동산·전통에는 등 문화유산 정보수집 예정

군산시가 다양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시민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시민공모는 문화유산 보호·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종합적 문화유산 대책 수립, 향후 문화재 지정(등록)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문화유산 실수조사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시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부동산(건축물, 토목구조물, 각종

시설물 식생현황 등), 동산(서적, 예술품, 공산품, 사진), 전통에는 등(공예, 예술), 전통기술(공예, 미술), 전통지식 및 관습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군산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장소 또는 사물, 특정시기의 양식 또는 기술을 담고 있는 건조물, 농업 경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주택 건축물(고택, 종택 등)과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고유의 의식이나 놀이, 문화유산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큰 구비전승(전설, 설화), 전통생활관습

등이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74)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모는 잠재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군산시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응·복합 창의 설계 캠프 운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프리임사업단과 공과대학 공학교육원이 공동으로 '2016 응·복합 창의 설계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공과대학을 비롯해 프리임사업 참여 학과 학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응·복합 창의 설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말에 대전 한화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특히 캠프에는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미술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등에서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단순 강의 교육이 아닌 직

접 참여할 수 있는 응·복합 체험형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창의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 운영결과 민병정(정보통신공학과), 박수진(귀금속보석공예과), 정여민, 박정민(전자공학과) 학생이 팀을 이뤄 '귀금 상황을 대비한 DESA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상인 총장상을 수상하고, 금상, 은상 등 총 5개 팀이 입상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한편 캠프 진행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캠프 참가자의 94.8%가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음주운전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 단속 체계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숙취운전 단속, 수요일 심야 음주단속, 금요일 일제음주단속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에도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4건 발생하여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57명, 면허취소 66명, 추징금부 2명 등 122명

이 단속했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만연된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술집 골목 및 음주사고 발생 취약지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공단,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스피드카메라 음주단속을 상시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김동봉 군산서장은 "음주운전은 반듯이 단속한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기위해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양곡지원 '확대'

군산시가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를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6년 430만원(4인가구)에서 2017년 447만원(4인가구)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29%(4인가구 127만원)에서 30%(4인가구 134만원)

로 인상됨에 따라 월 7만원 가량 인상 지급된다.

정부양곡은 전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 1포당(20kg) 50%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 90%로 대폭 확대하여 본인 부담금 2800원에 양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종전대로 50%를 지원한다.

/군산=문정근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교육부 인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은 우수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진로체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우수한 기술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나노측정, 컴퓨터응용기계과, 생산자동화

과, 산업설비과, 전기제어과, 주얼리디자인과 등 6개의 학과체험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익산교육지원청과 진로·직업체험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익산지원중학교 재학생 15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은반지 만들기 등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학과체험형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공모 신청·접수

익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익산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사업 공모는 민간단체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의성 있는 가족 친화적 특성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공모사업 대상은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사업 5대 분야 ▲평등한 익산 만들기 ▲안전한 익산 만들기 ▲건강한 익산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여성가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 등이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500만원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유사종목사업, 일회성이거나 행사위주의 사업, 자부담 비율이 사업비의 10%미만 사업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행정공시/지방보조금/공모공고)를 참고하거나 익산시 청 여성보육과(☎063-513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